

전남도, 해상풍력발전 속도... '미래 먹거리' 확보 박차

발전허가 17.3GW... 점유율 60%
글로벌기업, 공장 설립·인재육성
전력계통문제 해결 위해 총력전
전문가 싱크탱크 구축 현안 대응

'에너지 대전환'이 전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해상풍력 발전허가 중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남도가 해상풍력발전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바다에 설치된 풍력 터빈을 이용해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람이 육지보다 더 강하고 일정하게 불어 더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민선7기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해상풍력'을 전남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고, 오는 2030년까지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해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에너지산업국과 해상풍력산업과를 신설해 사업 지원 및 각종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남도는 지난 4월 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해상풍력 분야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춘 베스타스 윈드 시스템스 A/S와 A.P. 몰라-머스크 A/S, 목포시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베스타스와 머스크 양사는 공동으로 약 3000억원을 투자, 2027년 양산을 목표로 목포신항 항만 배후단지 20만㎡에 연 최대 150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 터빈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18일에는 노르웨이 해상풍력 발전사 딥윈드오프쇼어(DWO), 서부노르웨이응용과학대학(HVL),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와 '해상풍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협력 업무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에도 나섰다.

지난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제300차 전기위원회에서 전남도가 찬성의견을 제출한 영광 칠해1·2, 신안 후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조건부 허가를 받는데도 성공했다. 한화건설이 신청한 영광 칠해1·2는 발전용량 각각 510MW, 총 1020MW다. 전남 개발공사가 신청한 신안 후광은 발전용량 323MW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남도는 총 17.3GW의 발전 허가를 받았으며, 이는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총 허가 용량인 28.9GW의 60%가량에 해당한다.

전남도의 해상풍력 잠재량은 125GW로 전국 해상풍력 잠재량 386.5GW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존에 허가 완료된 16GW 발전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SK E&S가 주도하는 국내 최초 99M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도 앞두고 있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문제 해결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산업부가 지난 5월 추가접속을 제한하는 계통관리 변전소를 지정함에 따라 접속제한시기인 2031년까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협의회를 개최해 정부 주도 신규 345kV 변전소 건설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30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12일 해상풍력 생태계 조기 구축을 위한 전문가 싱크탱크를 구축했다. 전남도는 이날 전남개발공사 10층 대강당에서 전남풍력산업협회 전문가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다양한 기관 전문가 위촉에 나섰다. 전남도는 이번 위킹그룹 구축을 시작으로 민·관·산·학 협업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구성을 통해 해상풍력 분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2면에 계속**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12일(현지시각)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폐회식에서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다.

뉴시스

'21개 종목·144명' 소수 정예로 파리 기적 일궈다

金 13개·銀 9개·銅 10개 수확
하계올림픽 최다 금 타이 기록



21개 종목에 144명, 구기 종목의 잇단 부진으로 1976 몬트리올 올림픽(50명) 이후 최소 규모 선수단을 꾸린 태극전사들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소수 정예'로 기적을 일궈다. 하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인 13개의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4년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의 열전을 기대케했다.

2024 파리 올림픽이 12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9

개, 동메달 10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순위 8위에 올랐다.

한국은 소수 정예 선수단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태극전사들이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를 수확한 것은 하계 올림픽 역대 최다 타이 기록으로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12 런던 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다.

총 메달 개수로는 금메달 12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 등 총 33개의 메달을 수확했던 1988 서울 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해외에서 열린 올림픽으로 한정하면 금메달 13개와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 등 총 32개의 메달을 수확했던 2008 베이징 올림픽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5개 이상 획득, 종합 순위 15위 이

내 진입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나 태극전사들의 성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대회 성과에는 대표적인 효자 종목인 양궁의 역할이 컸다. 한국 양궁 국가대표팀은 남·여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까지 양궁에 걸린 금메달 다섯 개를 싹쓸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은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더하며 무려 일곱 개의 메달을 쓸어 담았다.

양궁에서 무더기 메달이 쏟아지면서 한국 선수단 MVP 역시 양궁에서 나란히 3관왕에 오른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의 몫이었다. 특히 임시현은 2022 항주우아시안게임에 이어 MVP에 등극하며 간판 태극전사의 위치를 지켰다. **▶ 관련기사 14면** **한규빈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PERON
엑스페론

[Yes. & True balanced]

밸런스 라인